

교육형 축제의 체험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Experience program development of educational festival

이가은, 김 해 *, 이익수**

셰필드 경영대학교, 경기대학교*, 청주대학교**

Lee Ka-eun, Kim Hae-seong*, Lee Yk-su**

Sheffield Hallam University., Kyonggi Univ.*,
Ch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교육형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의 형식, 진행방식, 내용의 교육적 측면을 알아보고, 향후 방향정립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교육형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은 형식 및 진행방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탈일상성 강화,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차별적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I. 서론

한국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망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1] 이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 또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축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축제의 평가에 있어서도 교육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축제를 평가한 여러 연구보고서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2][3]

축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방문동기와 관련된 교육적 측면은 다소 덜 중요시 되고 있다.[4]

또한 축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축제 프로그램의 체험성 및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프로그램 교육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5][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중 교육적 요소가 강한 청주 직지축제 및 강화 고인돌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속성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지역축제의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 발

전방향의 한 전략으로 교육적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 및 형식, 진행방식, 내용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교육형 축제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축제의 교육적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형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교육형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래 교육형 축제의 향후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 교육적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축제의 교육성

축제와 관련된 교육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단지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동기의 한 요소로 교육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강환(1999)은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이천도자기축제의 국내외 방문객 시장분석, 방문동기 및 축제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방문동기중 교육측면의 요소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방문동기를 사용했다.[1] 또한 정강환·노용호·김상호(2006)는 “역사문화축제의 마케팅적 접근 : 대가야체험축제의 2005-2006 비교” 연구에서 축제행사 만족도를 분석함에 있어 마케팅적 분석요소로 상품의 교육적 효과를 사용했다.[3]

이 밖에도 이용철·김창수(2008)는 무주반딧불 축제를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에 있어서 메인프로그램 서비스품질이 축제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의 요소로 ‘학습성’을 제시하였다.[7]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Mouton(2001)은 3곳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12명의 성인을 방문하게 한 후 심층면접 및 관찰을 통해 학습과정을 연구한 결과 지역축제의 방문은 자기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표 1. 축제의 교육성 연구

연구자	내용
정강환(1999)	방문동기중 교육측면의 요소 연구
정강환·노용호·김상호(2006)	축제 만족도에 분석요소로 교육적 효과 사용
이용철·김창수(2008)	서비스품질 요소로 학습성 제시
Mouton(2001)	지역축제를 통한 학습과정을 연구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정리

2. 체험 프로그램

체험(experience)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서, 관광체험은 동기→경험→결과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5]

지역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축제를 참여

하는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정서·인지적 행동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체험에 관련되어 연구된 체험요인은 일탈감, 지적체험, 대인교류감, 자연친화감, 모험감, 신기·이색체험, 창의적 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체험프로그램은 참여당시의 개인적·상황적 요인에 의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각각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숙영·엄서호(2005)는 수원 화성행궁 체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유산관광지에서의 현장체험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 재미, 이탈, 동반만족이 체험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이재만(2009)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 체험프로그램 만족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체험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일탈감, 지적체험, 대인교류감, 친화감, 모험감, 신기·이색체험, 창의적 체험으로 구분하였다.[9] 이와 아울러 정강환·노용호·김상호(2006)는 “역사문화축제의 마케팅적 접근” 연구를 통해 가족 참여체험 및 생산적인 체험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축제 방문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3]

표 2. 체험프로그램 연구

연구자	내용
한숙영·엄서호(2005)	체험요소를 교육, 재미, 이탈, 동반만족으로 구분
이재만(2009)	체험요소를 일탈감, 지적체험, 대인교류감, 친화감, 모험감, 신기·이색체험, 창의적 체험으로 구분
정강환·노용호·김상호(2006)	가족 참여체험 및 생산적인 체험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방문객 만족 향상방안 제시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정리

Ⅲ. 현황분석 및 고찰

1. 청주직지축제

청주직지축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直指)’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

조명하고,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0 청주직지축제는 2010년 9월 3일 ~ 9월 6일까지 4일간 청주예술의 전당 및 고인쇄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행사 구성을 살펴보면 공식행사, 중심행사, 참여행사, 연계행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참여행사는 전시관람과 체험학습의 2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표 3. 2010 청주직지축제 행사구성

구분	행사내용
공식행사	개막식(직지의 날 행사), 폐막식
중심행사	주자소의 하루, 시민음악회, 불꽃음악공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교과서 전시회, 청주청원문중 특별전
참여행사	1인1책전시회, 한국공예관 특별전, 야간경관, 문방사우 만들기, 배움-장원급제 향해!!!, 인물 포토존, 고려주막과 직지장터
연계행사	한글의 문자세계화를 위한 세미나, 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CJB직지음악회, E-게임 스포츠대회, 팔만대장경조판시연 연구지정학교 학술발표회, 청주성탈환축제

자료 : 2010 청주직지축제 홈페이지
(<http://www.jikjifestival.com>)

표 4. 2010 청주직지축제 체험 프로그램 구성

구분	행사내용
공연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각종 문화예술 공연(가족과 함께)
전시관람	기록물전시회, 직지작품 특별전, 1인 1책 전시회, 도서전 및 고문서 전시
체험학습	문화예술촌(문화예술교육체험), 금속활자 문패, 목걸이 만들기 등, 라디오와 함께 하는 청주문화로드, 고려주막과 직지장터

자료 : 2010 청주직지축제 홈페이지
(<http://www.jikjifestival.com>)

2010 청주직지축제의 행사구성을 살펴보면 공연, 전시 및 관람, 체험 및 학습, 학술의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체험 프로그램은 공연, 전시 및 관람,

체험 및 학습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채용하고 있는 행사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공연과 전시·관람과 같이 단순 참여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학습과 같이 복합적 참여를 요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유료로 진행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지의 관련된 공예품 만들기 등 직지와 관련된 역사성의 재해석을 통한 지적체험과 신기·이색체험 및 창의적 체험과 더불어 문화공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탈일상성 및 동반만족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록물 전시회 등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교육적 요소를 강조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0 청주직지축제의 체험 프로그램은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국내의 타 유사 지역축제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축제 체험프로그램의 체험요소를 대부분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강화군이 자랑하는 고대문화를 주제로 한 이색관광축제로 1998년 처음 열렸으며,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화도 고인돌을 소재로 구석기시대의 유물 및 고인돌 등 고대 유적과 유물이 많은 강화도의 역사적 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놀이와 교육이 복합된 에듀테인먼트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2010 강화고인돌 문화축제는 11월중 강화군 고인돌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행사구성은 아카데미, 역사체험, 전통문화예술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5. 2010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행사구성

구분	행사내용
아카데미	고인돌 아카데미, 고인돌 축조재현
역사체험	강화고인돌탐방, 고인돌 디카 컨테스트, 추억 속의 강화 사진전, 원시공룡 포토존
전통문화체험	강화 약썩 떡 만들기 체험, 전통 다도, 혼례, 연날리기 체험

자료 : 2010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홈페이지
(<http://www.ghgoindol.com>)

표 6. 2010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체험프로그램 구성

구분	행사내용
전사관람	강화고인돌탐방, 추억 속의 강화 사진전, 원시공룡 포토존
체험학습	고인돌 아카데미, 고인돌 축조재현, 강화 약썩 떡 만들기 체험, 전통 다도, 혼례, 연날리기 체험

자료 :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논자 재구성

2010 강화고인돌 문화축제의 행사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 및 관람, 체험 및 학습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는 청주 직지축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채용하고 있는 행사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방식도 전시·관람과 같이 단순 참여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학습과 같이 복합적 참여를 요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유료로 진행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인돌 역사와 관련된 고인돌 아카데미 및 축조재현 등 역사체험행사와 강화지역의 일반문화예술체험으로 대분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강화지역의 기록사진 전시회 등은 강화지역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적 요소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0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의 체험 프로그램은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국내의 타 유사 지역축제와 비슷한 형식을 띄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시관람과 체험·학습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교육형 축제의 체험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제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적 요소를 중시하는 지역축제는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체험, 모험감, 신기·이색체험, 창의적 체험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하지만 사례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지역축제 중 교육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진행방식에 있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내용면에 있어서 축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축제를 구성하는 소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축제의 교육적 효과를 재미와 이탈, 동반만족으로 볼 때 이탈의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축제의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주직지축제의 경우 고려장터 등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탈일상성 및 이탈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관람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탈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축제 공간의 재구성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품질 측면에서 볼 때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각 축제는 교육형 축제를 지향하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체험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형 축제를 지향하는 지방축제는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각 축제의 교육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만족 요소에 대한 개선 및 부족한 교육측면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소재적 차이에서 오는 차별성 뿐만 아니라 각 축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차별적 형식 및 진행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1,000여개가 넘는 지역축

제 중 관광객의 인식에 자리잡을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증가 및 지역축제의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교육형 축제의 체험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교육적 체험요소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교육형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교육형 지역축제의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요소는 전시·관람과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구성, 진행방식에서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탈 및 탈일상성 요소의 강화, 만족도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의 형식 및 진행방식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교육형 축제라고 해서 교육적 효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형 축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축제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교육형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지역축제 중 교육형 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들은 축제의 교육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07.

- [4] 송재일·손대현 “지역축제 방문자의 자녀교육열에 따른 행사프로그램 만족차이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6권, 제2호, pp.71-84, 2004.
- [5] 이준엽·유정림·조현민·조태영, “축제 프로그램의 체험성에 관한 연구 : 서산해미읍성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제7권, 제2호, pp.97-111, 2005.
- [6] 김희정·박현우 “전통문화축제의 이벤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2006 경주 술과 떡 축제를 중심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제2권, 제2호, pp.43-59, 2006.
- [7] 이용철·김창수 “지역축제에 있어서 메인프로그램 서비스품질이 축제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무주반딧불 축제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제9권, 제1호, pp.285-306, 2008.
- [8] Mouton, W. C., Exploring the learning perspective of adult participants in educational and commercial travel environments : experiences within three wine related.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o the Texas A&M University, 2001.
- [9] 이재만, “지역축제 체험프로그램 만족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9권, 제9호, pp.390-379, 2009.
- [10] 한숙영·엄서호, “유산관광지에서의 현장체험성에 관한 연구 : 수원 화성행궁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20권, 제2호, pp.55-69, 2005.

■ 참고 문헌 ■

- [1] 정강환,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이천도자기축제의 국내외 방문객 시장분석, 방문동기 및 축제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13권, pp.57-73, 1999.
- [2] 데이코D&S “2007 한국축제연감”, 서울 : 데이코D&S, pp.733, 822, 2006.
- [3] 정강환·노용호·김상호 “역사문화축제의 마케팅적 접근 : 대가야체험축제의 2005-2006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29-139,